행남자기, 대주주 바뀌었지만 목포 공장은 계속 운영

‘더미디어’와 개인 투자자에 주식 매각
다음달 28일 임시주총 경영계획 등 발표 할 듯
지역민들 “향토기업 새로운 도약의 계기 되길”

지역과 함께 73년을 같이해온 전통 향토기업인 행남자기의 오너가 바뀐데 대해 지역민들은 착잡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15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행남자기가 최근 공시를 통해 대주주가 바뀐데 대해 지역에서는 당혹감 속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경영위기가 지속돼온 행남자기가 새 주인을 만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행남자기는 김용주 회장 등 오너일가 보유주식 229만8651주(총 발행주식 36.89%)중 229만1756주를 ㈜더미디어와 개인투자자 진광호씨에게 각각 160만4256주와 68만7500주를 200억원에 매각한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지역민들은 오너가 지분을 완전 매각, 경영권이 넘어간 만큼 오너 입장에서는 매각이지만 행남자기 본사가 목포 연산동 현지에 있는 만큼 여전히 지역기업이라며 애정을 거두지 않고 있다.

행남자기 한 고위간부는 “회사경영이 한계점에 봉착, 불가피하게 더미디어에 매각했지만 여력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경기도 여주와 목포, 함평에 있는 3개 계열사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다시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최근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때 일부 계열사를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이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며 “이번 매각도 이런 경영의 일환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행남자기가 주주는 변경됐지만 연산동 목포공장은 계속 운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경제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행남자기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16년 대양산단 2필지(20억원 내외)를 분양받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해 앞으로 새로운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과 함께 경영에 참여한 김유석 대표는 고(故) 김창훈 창업주의 증손자로 2012년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아 현재까지 이끌어 왔다.

그러나 중국산 등 저가 제품과 유럽산 명품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대부분 시설을 여주공장으로 이전하고 현 목포 연산동의 행남자기 본사까지 이전하려 했으나 선대 고 김준형 회장이 “목포에서 기업을 키웠으니 목포와 호남을 위해서도 어떠한 경우든 본사는 목포에 놓아 두라”는 유언을 현임 김용주 회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실천에 옮겼다. 지역민들도 행남자기 만큼은 목포에 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수익성 저해요인에도 이제까지 존속시켜 온것이다. 이같은 배경과 함께 그동안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향토기업 이미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 목포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목포 본사를 산정동에서 연산동으로 이전해 운영해 왔다.

한편 행남자기의 새 경영진 면모나 경영방향 등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행남자기 연혁**

1942년 5월	행남사 설립(전 산정공장) 자기류 생산 개시
1956년 9월	제1회 전국모범생산 기업체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1957년 5월	본차이나 자체 제조기술 개발
1973년 5월	행남특수도기 주식회사 설립(현 상동공장)
1978년 12월	석현공장 준공
1980년 1월	(주)행남사 설립(행남사와 행남특수도기(주) 합병)
1986년 5월	행남자기(주) 설립(전남 함평), 행남 기술연구소 준공
1987년 2월	세계일류화 상품 추진 업체 지정, 행남특수인쇄(주) 설립
1994년 7월	(주)행남사를 (주)행남자기로 상호변경
1997년 10월	(주)행남통상 설립
2004년 9월	도자기 업체 최초 위생·안전 품질 인증(H.S)마크 획득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공식만찬 식기 및 VIP 선정
2012년 10월	행남자기 여주공장 국가 인적자원 계발 컨소시엄 최우수상
2012년 12월	목포공장 고하대로(연산동) 이전

행남자기 역사

순수민족자본 최초 도자기 기업
73년 전통 4대째 가업 이어와

향토기업인 행남자기는 전신인 행남사로 지난 1942년 목포시 산정동에서 창립했다.

행남자기는 우리나라 도자산업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자기업이다.

1957년엔 최고급 도자기 기술로 알려진 본차이나를 자체기술로 개발, 공급했다. KS지정 공장, 도자기 플랜트 수출도 국내 최초다.

행남자기는 지역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4대째 가업을 이으며 70여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현재 도자기 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김유석 대표가 회사를 이끌어왔다.

현대기아차 중국서도 ‘씽씽’

중형차 시장 점유율 20% 돌파

현대기아차의 중국내 중형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쏘나타, K5 등 중형차를 총 26만3610대 판매했다. 이는 전체 판매 대수인 128만3936대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국 경기 침체와 현지 토종업체의 저가 공세로 올해 초부터 주춤했던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지난달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되는 상황에서 고수익 차종의 판매 비중까지 높아진 것이다.

현대차의 중형차 판매 비중은 2008년 8.5%에 불과했으나 YF쏘나타가 투입된 2011년 15.3%로 뛰었다. 이후 현지 전략차종인 ‘밍투’가 본격 판매된 지난해 17.8%까지 올라갔다. 올해에는 지난 3월 중국 시장에 첫선을 보인 신형 쏘나타가 출시 첫달 6345대가 판매된 것을 비롯해 월평균 5천대 가까운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덕분에 10월까지 현대차의 중형차 판매 비중은 역대 최대인 22.8%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경우 중형차 판매 비중이 2008년 2.9%에 그쳤으나 K5가 출시된 2011년 8.6%까지 올라간 데 이어 K4가 합세한 지난해에는 12.7%까지 상승했다.

올해에는 K4와 K5 두 차종이 기아차 판매 비중의 16.5%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중형차 판매 비중 확대는 안정적인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SUV 라인업의 판매 호조 또한 수익성 개선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지난 9월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현대차의 신형 투싼은 지난달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7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8	17	34	39	45	2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79,726,500	8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9,782,572	63
3	5개 숫자일치	1,505,287	1,665
4	4개 숫자일치	50,000	83,276
5	3개 숫자일치	5,000	1,371,921

금호타이어 가족 음악회…주부들 ‘난타’ 공연

14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가족 음악회’ 공연에서 주부국악단이 힘차게 난타 공연을 펼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기아차, 서울서 K9 고객 초청 재즈 공연

기아차는 고품격 재즈 콘서트에 K9 멤버십 고객들을 초대하는 ‘K9 재즈 인비테이션’ 행사를 오는 26일 서울 청담동 ‘원스 인 어블루문’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초청된 고객 80명(40쌍)은 기아차가 준비한 ‘K9 다이닝 코스’ 요리를 즐기며 재즈 보컬 ‘웅산’의 공연을 관람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K9 초청행사 운영사무국으로 전화(1644-9145)하거나 문자(0133-362-1945)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보유하는 K9 차량번호를 보내면 응모가 된다. 아울러, 기아차는 12월에는 대구와 광주에서 하우스 콘서트 형식의 클래식 가곡 초청행사인 ‘K9 클래식 인비테이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연장 영업 은행 전국 536곳
전체 7%…광주은행 9곳 운영

은행권에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탄력 점포’가 전체 점포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을 비롯한 12개 은행이 536곳의 탄력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은행 전체 점포 수(7297곳)의 약 7.3%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25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74곳), 우리(54), 대구(39), 부산(33), KEB하나(20), SC(12), 국민(12), 기업(12), 경남(11), 광주(9), 전북(6) 순이다.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광주시청, 전남도청, 법원, 북구청, 서구청, 남구청, 동구청, 여수시청, 목포시청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 점포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관공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연장영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수요가 늘어나면 변형근로시간제를 운형하는 점포가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